

## 果實類의 輸出入 現況과 對策

李 栢 薫

責任研究員, 農政研究室

- I. 序論
- II. 果實類의 輸出入 現況
- III. 果實類의 輸出入 特性과 問題
- IV. 對策

### I. 序論

貿易敘이<sup>1</sup>는 經濟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제 貿易은 우리 國民 生活이나 經濟發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貿易  
은 어느 產業이든간에 그 重要性이 높다.

農林水產物의 輸出도 全體 總輸出에서 차지하고  
比重이 높았으나 점차 製造業과 長化學工業에  
밀려 그 比重은 낮아지길 했으나(李栢薰 1981,  
90) 輸出入의 重要性은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農產物 輸出 중에서 輸出比重이 큰 것 중의 하나가 果實類인데 最近 5年間 果實類의 輸出入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問題는 무엇이며, 輸出  
을 계속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對策이 필요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본 分析을 펼쳐 보고자

表 1 果實類의 1인당 輸出入量 推移

單位 : g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0
1人當 輸 出(A)	264	488	311	183	322	263
1人當 輸 入(B)	169	189	269	721	466	119
1人當 純輸出(C) (A-B)	95	299	42	-538	-144	144

註 : A=各年度 果實類의 輸出量／各年度 年末人口

B=各年度 果實類의 輸入量／各年度 年末人口

C=A-B

資料 : KREI, 「農林水產物 貿易基本統計」, 1981에서 計算

한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果實類의 1人當  
輸出量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77년의 1人當 488g  
였고, 輸入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79년으로 1人  
當 721g에 해당된다. 특히 1979년에는 1人當  
539g의 果實類가 輸入에 依存한 셈이다. 이것은  
5人家族을 基準으로 2,690g의 果實類를 輸入하  
서 消費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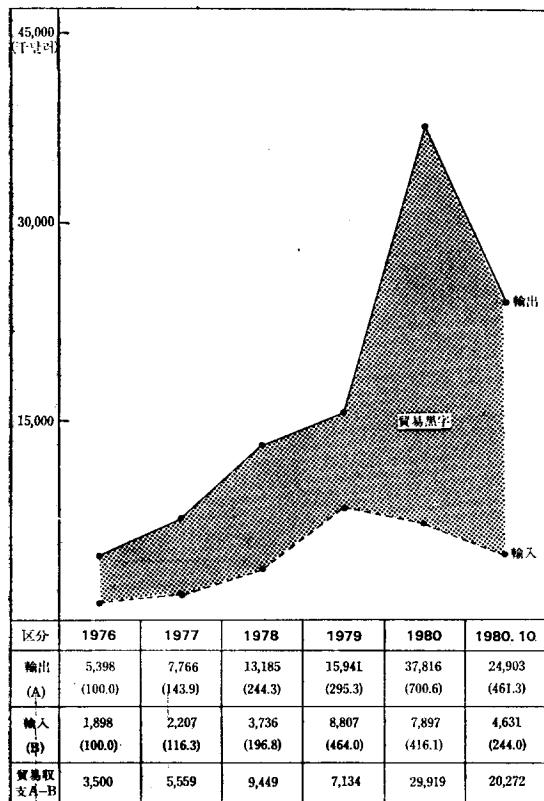
그러나 〈表 2〉에서와 같이 1979年과 1980年은  
物量面에서 輸入量이 많았으나 貿易收支面에서  
는 黑字를 기록하고 있다.

### II. 果實類의 輸出入 現況

果實類의 輸出入狀況으로 크게 두드러지게 나  
타난 것은 1976년에서 1979년까지 輸出額의 增加

<sup>1</sup> 果實類 중에서 食用에 適合하지 아니한 너트와 果實은 제외하였으며, 신선한 果實에는 냉장한 것을 포함했다. 그리고 製造 및 가당된 果實을 제외한 CCCN 分類 第8類에 속하는 分類만 취급하였다(CCCN 品目分類 參照).

表 2 果實類의 貿易收支 現況



( ) 안은 1976을 100으로 한 指數임。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林水產物 貿易 基本統計」, 1981.

와, 輸入額의 增加가 比例했으나, 1980년에는 輸出이 急激히 增加한 反面에 輸入은 減少하여 1980년과 1981년의 貿易黑字幅이 增加된 特징을 보여 주고 있다(表 2 參照)。

1980년의 輸出額은 1976년에 비해서 7.0倍나 增加했으나, 輸入은 同期間 4.2倍의 增加에 머물게 되어, 同期間 總交易量 134.2百萬달러 중에서 75.8百萬달러의 黑字를 가져와 黑字比重이 56.5%에 이르렀다.

### 1. 果實類의 輸出

果實類의 輸出은 1976년 農水產物 輸出의 0.7%에 불과하나, 農產物 輸出 중에서는 2.1%였다. 1980년은 1976년에 비해서 農水產物 輸出이 1.94倍, 農產物 輸出이 2.14倍였는데 果實類는 7倍로 前者들보다 그 增加가 크게 上廻하고 있다.

果實類는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商品分類法에 따라 第8類인 食用의 果實 및 너트와 ベル론 또는 감귤類의 껍질(edible fruit and nuts : peel of melons or citrus fruit)로써 4單位 基準 13個品目이며, 8單位를 基準하면 40個 品目이 된다. 그리고 가당하거나 製造된 果實類(통조림 등)는 여기에서 論外로 한다.

〈表 5〉에서와 같이 1970年代 後半期(1976~80년)에서 年平均 1萬달러 이상 輸出이 된 品目은 모두 13個 品目이며, 年平均 10萬달러 이상은 6個 品目이 된다.

表 3 果實類의 輸出比重

單位：百萬달러

區 分	1976e	1977	1978	1979	1980f	1981p	f/e (%)
總 輸 出(A)	8,115	10,474	12,711	15,055	17,505	20,900	215.7
農水產物 輸出(B)	747	1,260	1,247	1,399	1,447	1,500	193.7
B/A (%)	9.2	12.0	9.8	9.3	8.3	7.3	
農產物 輸出(C)	251.3	324.7	386.5	362.2	536.9	550.0	213.6
C/B (%)	33.6	25.8	31.0	25.9	37.1	36.7	
果實類 輸出(D)	5.4	7.8	13.2	15.9	37.8	25.0	700.0
D/B (%)	0.7	0.6	1.1	1.1	2.6	1.6	
D/C (%)	2.1	2.4	3.4	4.4	7.0	4.5	

資料：KREI, 「農林水產物 貿易 基本統計」,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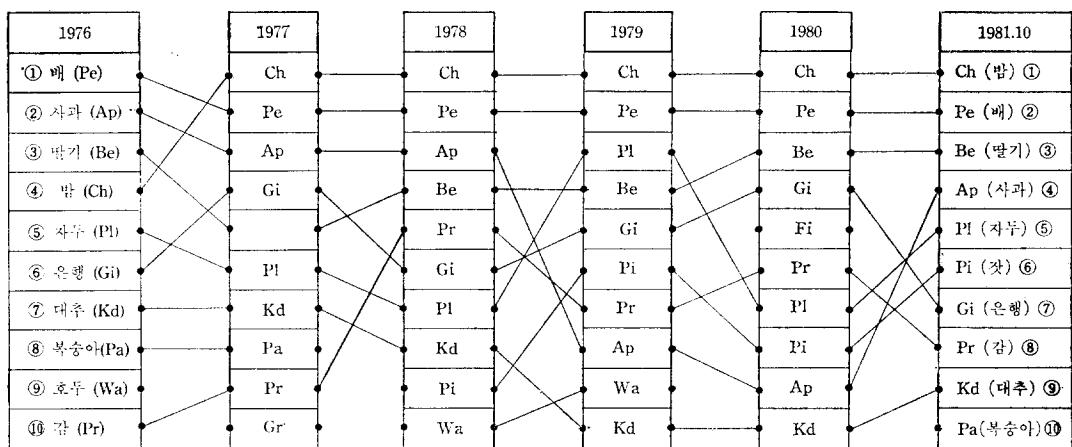
表 4 主要 果實類의 輸出推移

單位 : 千달러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0
合 計	5,398	7,766	13,185	15,941	37,816	24,903
사 과*	897	1,644	823	21	17	115
배*	1,219	1,877	2,488	1,197	1,756	1,624
자 두*	189	186	216	508	35	85
딸 기 류*	536	220	413	177	264	403
감 류*	—	13	279	63	38	38
밤*	403	1,927	4,901	8,524	22,043	11,984
복 송 아	9	19	34	—	—	9
오 랜 지	—	5	6	7	8	5
대 추*	94	119	155	7	9	30
무 화 과	—	—	—	—	191	—
호 두	2	—	37	13	3	17
잣	—	—	112	84	24	73
은 행*	183	261	275	122	233	45
포 도	—	11	—	—	—	—
병 등 과 실*	1,730	1,064	1,015	100	309	1,258
저 장 과 실*	128	326	2,131	5,050	1,285	9,180

資料 : KREI, 「農林水產物 貿易 基本統計」, 1981

表 5 果實類 10大 品目の 輸出變化(輸出額 기준)



Gr(포도), Pi(잣), Fi(무화과)  
資料 : <表 4>에서 作成.

이들 主要品目들을 同期間(1976~80년) 平均  
順位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밤 (chestnuts) 47.2%

② 배 (pears) 10.7%

③ 사과(apples) 4.2%

④ 딸기류(berries, fresh) 2.0%

⑤ 자두(plums) 1.4%

⑥ 은행(gingko-nuts)

⑦ 감(persimmons)

⑧ 대추(korean dates)

⑨ 잣(pine-nuts)

⑩ 무화과(figs, fresh or dried) 복숭아(pe-

aches) 호두(walnuts)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①과 ②인 밤과 배의 輸出이 57.9%로 절반 이상의 輸出比重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오렌지(oranges) 포도(grapes, fresh or dried), 냉동과실(fruit preserved by freezing)<sup>2</sup>, 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fruit provisionally preserved)<sup>3</sup>, 멜론의 껍질과 감귤류의 껍질(peel of melons and citrus fruit)<sup>4</sup> 등이 輸出되고 있다.

果實類의 주된 輸出品目은 밤으로 全體果實類輸出의 輸出比重은 1976년 7.5%에서 다음해인 1977년에 24.8%였으며, 그比重이 점차 높아져서 1978년에는 37.2%였고, 1979년에 53.5%로 全體果實類輸出의 절반을 넘게 되었다. 1980년에는 前年보다 5.8% 포인트增加한 58.3%로 그比重이 높아진 후 1981년 10월에는 前年對比 54.4%나 된다.

1980년 밤의 輸出額增加는 1976년의 55倍나 되는 急伸張을 보여 주고 있다.

밤 輸出이 急伸張하게 된 데에는 國內生產過剩과 政府의 輸出支援에 힘입은 바 크다. 밤은 內務部山林廳 소관으로 輸出入이 관장되었는데 山林廳公告 第12號(81. 12. 2)인 制限措置品目輸入 추천요령 改正에서 밤(깐밤 및 밤 통조림과 밤 병조림 포함)輸出實績에 對應하는 輸入比

<sup>2</sup> 냉동과실로는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가당한 것을 除外하였다(Whether or not cooked, preserved by freezing, not containing added sugar)

<sup>3</sup> Fruit provisionally preserved의 예를 들면 아황산가스, 염수, 아황산수 기타의 저장액에 저장한 果實로써 그대로 食用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에 한한다(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sup>4</sup> Peel of melons and citrus fruit로는 신선하거나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과 염수, 아황산수 기타의 저장액에 一時的인 저장을 한 것에 한한다(fresh, frozen, dried, or provisionally preserved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率調整에서 오는 이유도 그 하나가 된다.

對應輸入比率의 조치로는 깐밤의 경우 輸出實績金額의 5%以內, 밤 통조림과 밤 병조림의 경우 輸出實績金額의 20% 이내에서 韓國통조림 輸出組合이 對應輸入 추천을 대행하는 活性化對策을 들 수 있다.

한편 배 輸出은 1976년 이후 年平均 1.2~2.4百萬 달러의 輸出額을 유지해 왔다.

사과의 輸出은 1978년 이후 輸出이 저조하다가 1981년 다시 上昇되어 가고 있으며, 딸기류의 輸出도 많은 量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輸出을 계속해 오고 있다.

主要果實類의 輸出品目을 輸出國別로 現況을 分析해 보면 다음 <表 6>과 같다.

밤의 輸出은 日本을 비롯한 6個國에 輸出되었는데 주로 日本으로의 輸出이 99.9%(1981. 10)나 된다.

배의 輸出은 12個國에 輸出된 바 있는데 지난 5年間(1976~1980년) 싱가포르에 40.2%(3,429千 달러), 대만에 16.2%(1,384千 달러), 인도네시아 20.9%(1,784千 달러), 홍콩 12.9%(1,103千 달러)로 매년 輸出이 進行된 바 있으며, 1981년 10월 日本과 필리핀과는 實績이 없었고, 말레이지아와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에 네델란드(76년), 카나다(77년), 베팔(81년) 등과는 간헐적으로 交易이 試圖된 적이 있다.

사과는 8個國과 交易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간 매년(1976~81년) 계약된 國家는 없었다. 다만 필리핀이 1980년까지 輸出實績을 보였고, 1981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27千 달러어치의 輸出 문호가 열리기도 했다.

딸기류는 日本에 集中輸出된 바 있으며 자두도 4個國에 輸出되었는데 1981년 10월 대만으로 85千 달러의 처녀 輸出이 試圖된 바 있다.

表 6 主要 果實類의 國別 輸出推移

單位：萬달러

果實類	國名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0	비고
日 本	36.7	192.1	487.4	849.2	2,203.3	1,196.9		성가포르 '76-0.9 '77-0.3
bam	—	—	2.0	0.4	0.2	0.3		파 레 임 '78-0.3
사 우 디	—	—	—	2.1	—	0.7		쿠 웨 이 트 '81-0.4
미 국	—	—	—	—	—	—	—	—
日 本	10.0	18.6	16.8	0.5	2.3	—		베 린 랜 드 '76-0.2
대 만	35.3	15.6	28.6	5.3	53.6	70.3		캐나다 '77-1.2
필 리 페	1.3	4.5	6.3	4.9	1.1	—		대 만 '81-2.6
홍 콩	7.3	16.2	68.0	16.9	1.9	6.6		—
배	말레이지아	0.4	—	0.8	2.6	2.5	5.1	—
	싱가포르	36.4	79.2	86.6	62.0	78.7	47.3	—
	인도네시아	30.4	47.4	40.4	26.5	34.2	26.3	—
	태 국	0.6	4.3	0.6	—	1.4	2.4	—
	사 우 디	—	0.7	0.8	1.0	—	—	—
사	대 만	72.6	136.3	48.6	0.6	—	8.1	日 本 '76-2.2
	필 리 페	11.4	22.7	30.2	1.5	1.7	—	말레이지아 '76-0.3
	홍 콩	0.5	—	0.8	—	—	—	이란 '76-0.9
과	인도네시아	2.8	5.9	2.6	—	—	0.6	—
	사 우 디	—	—	—	—	—	2.7	—
딸기	日 本	53.6	22.0	41.3	17.7	26.4	40.3	—
차	日 本	15.6	9.8	8.7	10.7	1.7	—	( 대 만 '81-8.5
두	홍 콩	0.8	—	2.9	—	—	—	—
	싱가포르	2.4	8.7	10.0	40.1	1.8	—	—
은	日 本	8.5	25.2	25.6	7.1	19.0	2.4	말레이지아 '76-0.2
	대 만	—	0.9	—	1.2	1.2	1.5	싱가포르 '76-0.9
행	홍 콩	8.2	—	1.9	—	—	—	태국 '76-0.5
	프 랑 스	—	—	—	2.0	3.1	—	서독 '79-1.8
								미국 '81-0.5

資料；KREI, 「農林水產物貿易 基本統計」, 1981

은행은 9個國에 輸出되긴 했으나 9個國 중에서 매년 계속 輸出되기도는 日本과의 輸出이었다. 한편 1979년과 1980년에 프랑스로 51千달러어치의 輸出에 이어서 1981년 10월 미국에 5千달러의 첫 輸出의 문이 열리기도 했다.

輸出國別 分析에서 나타난 諸類型을 보면, ① 單一輸出國型에는 밤, 딸기, 은행 등의 果實類를 들 수 있고, ② 多國輸出國型에는 배 등의 果實類, ③ 多變化 輸出國型으로 사과, 자두 등의 果實類들로 分類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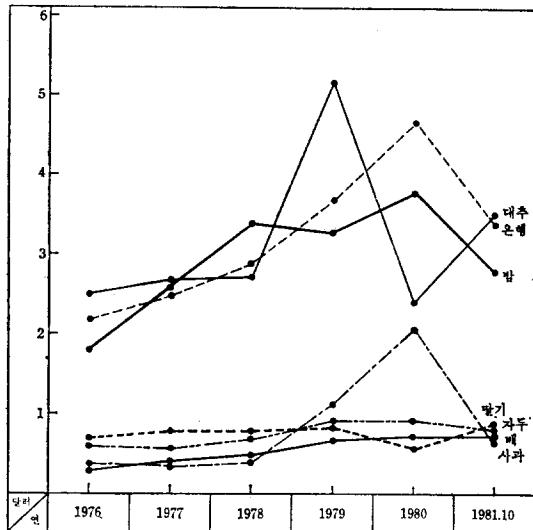
즉, 單一國家에 依存하는 輸出形態의 輸出品目은 相對國의 需要變化와 國內價格與件에 따라 輸出環境도 變化가 크게 되어 輸入의 安定的 確

保가 多國家間 貿易이나 長期 계약에서 찾을 수 있듯이 輸出은 輸入의 反對現象으로서 多國間 輸出形態로 指向되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들 6個 主要 果實類의 輸出은 과연 얼마에 輸出되고 있는가 하는 輸出單價를 보면 다음(表7)과 같다.

밤, 배, 사과, 딸기, 자두, 은행, 대추 중에서 딸기, 자두, 배 사과는 5個年平均(1976~1980년) kg당 價格이 1달러 미만이었고, 다만 사과만이 1979년과 1980년에 2달러를 넘어섰으나 1981년 10월 다시 0.7달러로 하락된 價格에 輸出되는 실정이다.

表 7 主要 果實類의 輸出價格 變化  
단위 : 달리/kg



資料 : <表 6>에서 計算.

밤, 대추, 은행은 kg당 價格이 2~5달러 사이를 오갔으며, 은행과 밤은 1980년까지 상승 추세였다.

價格의 變化가 가장 심했던 것은 대추와 사과로서 대추는 1979년 kg당 5.2달러로 最高時勢였으며, 사과 역시 1980년 kg당 2.1달러가 最高時勢였다.

輸出單價 分析에서 나타난 特徵으로는 첫째, 딸기, 자두, 배, 사과와 같은 品目의 果實類와 대추, 은행, 밤 등의 果實類 單價形成이 分類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딸기, 자두, 배와 같은 品目은 價格의 變化幅이 적은 범위에서 上昇勢를 보인 반면에, 사과의 價格變化는 1980年 前年對比 181.6%나 增加된 반면에 1981년에는 前年の 上昇보다 더 큰 比率로 下落을 가져왔다.

세째, 1980年 이후 대추 價格의 하락은 國內生產의 豐作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1980年 價格 하락에 따라 대추價格이 안정세에 돌입한 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대추의 輸入自由化를 推進하게 된 데에서 輸出價格이 낮아진 理由를 들 수 있겠다.

네째, 밤과 은행은 계속적인 價格上昇과 國內生產基盤形成與件으로 보아서 輸出促進의 좋은 商品의 價值를 갖고 있다 하겠다. 특히 1981년 10월 國別 밤 輸出單價를 보면 日本으로 kg당 2.89달러, 쿠웨이트로 11.98달러, 싱가포르에 12.80달러, 미국에 0.90달러에 輸出되어서 品種別, 時期別, 輸出商社 및 輸出商談에 따라 輸出量과 價格에 큰 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價格은 kg당 0.9달러에서 12.80달러의 差인 13倍의 差를 보였다.

다섯째, 배의 輸出單價는 1981년 10월 대만으로 kg당 0.71달러, 홍콩으로 0.71달러, 말레이지아로 0.89달러, 싱가포르에 0.83달러, 인도네시아에 0.85달러, 태국에 1.02달러, 네델란드 1.30달러 네팔에 1.06달러 등 品種의 數가 밤과 차이는 있겠으나 거리 관계를 제외하고 0.75달러에서 1.06달러로 밤 輸出 單價보다 큰 격차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연도별 價格差가 심한 것은 輸出市場이 다변화되어 있지 않을수록 價格變化와 關聯을 갖는다고 하겠다.

여섯째, 사과의 輸出은 1981년 10월 대만으로 kg당 0.69달러, 인도네시아에 0.45달러로 輸出되어 1상자(15kg)당 6.75~10.35달러로 달려 당 680원을 기준하면 상자당 4,500~7,000원에 해당된다.

일곱째, 딸기類는 日本으로만 輸出되었는데 1980년에는 前年보다 kg당 0.2달러가 낮은 價格이었고, 1981년에는 1980년보다 0.23달러가 높았다. 자두는 1981년 10월 대만으로 kg당 0.82달러에 輸出된 바 있다.

## 2. 果實類의 輸入

果實類의 輸入은 1980년 7,897千달러로서 이 가운데 바나나가 69.4%인 5,482千 달러를 차지했으며, 건포도는 18.3%인 1,447千달러를 차지하여 全體 果實類 輸入의 87.7%나 된다.

果實類의 輸入이 가장 많았던 것은 1979년으로 1976년의 4.6배나 되는 8,807千달러였으며, 1980년에는 前年對比 10%가 減少된 現象을 보였고 1981년 10월에는 前年對比 53%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1979년 이후 果實類의 輸入이 減少한 데에는 그동안 주종을 이루어왔던 바나나(Bananas) 輸入의 減少에 있다. 그동안 주종 品目인 바나나 輸入이 1981년 全體 果實類 輸入의 5%에 머물게 되자 반대로 그동안 낮은 量을 輸入했던 건포도(grapes, dried)와 대추(korean dates, dried) 輸入이 急激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1981년 10월의 주종 품목이 되는 건포도는 全體 輸入量의 57.2%나 되었으며, 이와 같은 量의 增加는 1976년보다 8.9倍나 늘어난 추세였다.

1981년 7월이후 輸入自由化된 대추는 그동안

전혀 輸入이 없다가 갑자기 565千달러나 되는 量의 輸入으로 全體 果實類 輸入額의 12.2%로 부상되고 있다. 과연 輸入自由化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量을 갑자기 들여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두어도 좋을지는 果實類의 輸入自由化에 대비해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問題로 등장하고 있다.

맨더린(mandarins), 탄제린(tangerins), 클레멘타인(clementines)월킹(wilking) 및 이와 유사한 신선하고 건조한 감귤류의 輸入이 金額面에서 1980년 791千 달러에서 1981년 951千달러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외에도 主要 輸入 果實類로서는 파인애플(pineapples), 레몬과 라임(lemons and limes), 오렌지(oranges) 잣(pinenuts) 아몬드(armonds), 브라질너트(brazilnuts), 캐슈넛(cashewnuts), 그레이프 푸루우트(grape fruite), 기타 감귤류(other citrus fruit), 해즐넛(hazelnuts), 호두(walnuts), 멜론과 감귤의 껍질(peel of melons and citrus fruit) 등이 최근 增加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잣과 호두를 除外하고 열대성 과실류의 輸入이 늘고 있는 것은 所得向上에 따른

表 8 主要 果實類의 輸入推移

單位 : 萬달러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0
合 計	189.8(100.0)	220.7(100.0)	373.6(100.0)	880.7(100.0)	789.7(100.0)	463.6(100.0)
바 나 나*	141.4( 74.5)	173.5( 78.6)	282.1( 75.5)	724.1( 82.2)	548.2( 69.4)	23.1( 5.0)
야 자	—	0.1	0.2	0.2	0.1	1.0
파인애플	3.3	—	—	—	—	—
레 몬과 라 임	5.9	—	0.8	3.9	6.1	5.3
오 렌 지*	8.2( 4.3)	4.2( 1.9)	0.4	14.3( 1.6)	4.2( 0.5)	5.0
맨 더 린 등*	1.8	8.3( 3.8)	35.8( 9.6)	46.7( 5.3)	79.1( 10.0)	95.1( 20.5)
건 포 도*	29.8( 15.7)	33.8( 15.3)	51.9( 13.9)	88.1( 10.0)	144.7( 18.3)	265.3( 57.2)
잣	—	—	—	—	1.4	3.6
알 몬 드	—	—	—	—	0.1	1.2
대 추*	—	—	—	—	—	56.5( 12.2)

註: 其他는 除外함

資料: KREI, 農林水產物 基本統計, 1981

表 9 主要 果實類의 國別 輸入推移

單位 : 萬달러

果實類	國 名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0
바나나	日本	17.8	12.7	2.2	4.7	0.1	2.2
	대만	—	73.1	66.0	90.9	100.0	—
	필리핀	76.9	22.8	68.7	432.1	345.6	21.0
	말레이지아	0.2	—	16.2	14.1	—	—
	에콰도르	46.5	56.5	129.0	182.2	102.4	—
견포도	태국	—	8.0	—	—	—	—
	기니아	—	0.4	—	—	—	—
맨더린류	미국	29.0	30.7	47.0	71.0	141.7	251.3
	호주	0.8	3.2	4.9	10.3	3.0	3.9
	그리스	—	—	—	6.7	—	—
	스위스	—	—	—	—	—	0.2
오렌지	日本	1.6	8.3	35.8	46.7	79.1	95.1
	미국	0.2	—	—	—	—	—
대추	日本	3.9	4.2	—	11.1	—	—
	미국	4.3	—	0.4	3.2	4.2	5.0
대추	9個國	—	—	—	—	—	56.5

資料 : &lt;表 8&gt;과 同一

果實類에 대한 입맛과 기호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果實類의 主要 輸入品目인 바나나, 견포도, 맨더린류, 오렌지, 대추의 輸入對象國을 보면, 바나나는 日本, 대만, 필리핀에서 계속 輸入되었고, 견포도는 美國과 濟州에서, 맨더린류는 日本에서 오렌지는 美國과 日本에서, 대추는 9개국에서 각각 輸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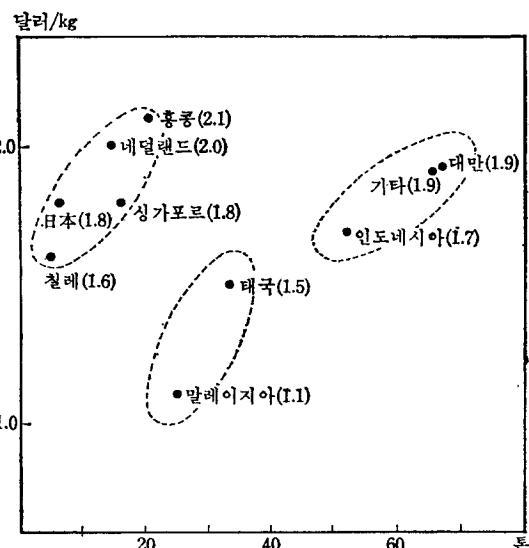
바나나는 國內生產이 없었고 1981년에서야 濟州地方에서 일부 온상용으로 개발 시험 재배되고 있는 品目으로서 그동안 全量을 輸入에 依存한 바 있다. 輸入對象國別 바나나 輸入依存度를 보면 1976년 필리핀에서 54.4%를 1977년 대만에서 42.1%를 1978년 에콰도르에서 45.7%를 1979년 필리핀에서 59.7%를 1980년 필리핀에서 63.0%를 1981년 필리핀에서 90.9%를 각각 輸入依存해 온 바 있다.

견포도는 美國과 濟州에서 주로 轉入되었는데 1981년에는 94%를 美國에서 轉入해 왔다. 특히 견포도는 1979년 그리스에서, 1981년에는 스위

스에서 2千~67千달러를 輸入해 온 바 있다.

最近 대추 輸入物量이 크게增加되어 1981년 7월에서 10월까지 4個月間 9個國에서 565千달러나 輸入한 바 있는데 이들 9個國에서의 輸入單價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0 대추의 國別 輸入量과 單價, 1981. 7~10



資料 : &lt;表 9&gt;에서 作成

表 11 果實類의 輸出入 單價變動과 交易條件

1975=100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0
輸出單價指數	132.0(109.7)	152.5(119.9)	264.6(132.6)	535.3(157.6)	708.7(167.9)	510.4
輸入單價指數	77.4(100.5)	79.3(100.4)	92.7(116.3)	80.3(140.0)	109.7(172.6)	247.1
輸出數量指數	75.7(138.5)	65.6(164.9)	37.8(188.6)	18.7(188.0)	14.1(205.3)	19.6
純商品交易條件	170.6(109.2)	192.2(110.6)	285.3(114.0)	666.6(112.6)	645.9(97.3)	206.6
所得交易條件	129.1(151.2)	126.1(102.4)	132.4(215.0)	124.6(211.6)	91.1(199.8)	40.5

註：單價指數는 달러 베이스(U.S dollar based)로 計算한 것임

( ) 안은 總貿易(全商品)의 貿易指數와 交易條件임

資料：KREI, 「農林水產物貿易基本統計」, 1981

KTA, 「貿易動向」, 1980

輸入物量의 크기로는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지아, 홍콩, 네델란드, 싱가포르, 日本, 칠레의 순이다.

대추의 kg당 輸入單價가 가장 높은 것은 홍콩으로 2.1달러였으며 다음이 네델란드 2.0달러, 대만 1.9달러, 日本과 싱가포르가 1.8달러, 인도네시아 1.7달러, 칠레 1.6달러, 태국 1.5달러, 말레이지아가 1.1달러였다.

그래서 대추의 輸入單價가 1981년 7월에서 10월까지 4個月間 最高 2.1달러에서 最低 1.1달러로 그 價格의 幅은 1달러나 되고 있다.

맛과 크기에 따라서 價格이同一할 수야 없겠으나 價格의 幅을 좁혀야 하는 것도 輸入自由化에 物量幅과 아울러 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果實類의 交易條件(terms of trade)을 (表 11)에서 보면 單價指數(unit value index)로서 輸出은 계속 상승하여 1980년은 1975년의 7倍로 上昇되었고, 1981년 10월은 1979년과 비슷한 상승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輸入은 1980년에서 야 1975년 수준을 넘게 되었으며 1981년 10월에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輸出의 數量指數(quantum index)는 점차 낮아져서 1980년에는 1975년의 14.1%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1981년에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純商品交易條件(nef barter terms of trade)

은 점차 높아져 왔으며, 1979년과 1980년에 그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所得交易條件(income terms of trade)은 1980년 이후 1975년 수준을 밀돌고 있다.

### III. 果實類 輸出入의 特性과 問題點

農水產物 貿易過程에서 여러 가지 共通的인 問題點이 있지만 果實類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特性을 갖게 된다.

첫째 果實生產이 季節的인 氣溫變化로 季節性을 갖는다. 이러한 季節性은 消費者들이 원하는 年中 消費充足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저장과 가공의 手段이 장구되어야만 한다.

둘째, 腐敗와 變質의 빈도가 높다. 一般穀物은水分 함량을 調節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果實類는 수확단계에서 상처없이 보관하게 되므로一定量의水分調節이 용이하지 못한 점이다.

세째, 부피가 커서 저장 및 수송비가 많이 들게 된다. 一般 穀物이 용기당 穀物의 밀집도와 果實의 상자당 果實量의 밀집도를 보면 後者的 밀집도가 낮게 되어 부피가 크게 되고, 큰 부피에 대한 수송비도 많이 들게 된다.

네째, 需要의 價格彈力性이나 所得彈力性이 낮은데 비해서 生產은 氣候의 變動에 따라 增減이

심하여 이에 따른 價格의 기폭이 심한 것이 特徵이다. 기후의 變動에 민감한 農作物의 生產이 모두 그러하지만 果實類는 특히 多年生일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크게 된다. 그것은 一年生 作物의 경우 生育期間이 問題이지만 多年生 果實의 경우 年中 氣溫變化와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다섯째, 果實類의 輸出入 必然性보다도 代替性이 높다는데 있다. 輸出入 對象國間의 代金決済方法 中에서 果實類間이나 또는 他商品間의 代決方法에서 오는 特徵도 있다.

이러한 特性에 따른 輸出入上의 問題點을 提示하자면 다음과 같다.

### 첫째, 貿易收支 面에서의 問題

果實類의 貿易收支는 黑字貿易의 하나로 農林水產物 貿易 중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 展望도 크다. 그러나 1979년을 除外하고 貿易收支가 輸入額을 모두 초과하고 있지만, 특히 1980년에는 그 초과폭이 4倍나 되고 있으며, 이러한 增加는 政府에서 밤 輸出을 重點으로 支援하여 준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農家の 所得增進을 위해서 支援品目을 더 높일 때에 오는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品目數보다도 밤 輸出에 따른 5~20%의 果實類 輸入許可率調整 問題와의 利益比重이 클지 모르지만 果實類輸出價格이 國內費價格이나 生產價格보다 밑도는 輸出은 고려되어야 한다.

表 12 果實類의 貿易收支

單位 : 千달러

區分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10
輸出	5,398	7,766	13,185	15,941	37,816	24,903
輸入	1,898	2,207	3,736	8,807	7,897	4,631
貿易收支	3,500	5,559	9,446	7,134	29,919	20,272

資料 : &lt;表 11&gt;과 同一

### 둘째, 貿易物量面에서의 問題

貿易黑字로써의 果實類 輸出入에서 物量도 輸出이 많으리라는 것이 당연한 듯하지만 1979년과 1980년은 輸入物量이 輸出보다 20,238톤, 5,466톤이 각각 많았다.

表 13 果實類의 輸出入 物量比較

單位 : 톤

區分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10
輸出	9,451	17,774	11,520	6,884	12,335	10,199
輸入	6,067	6,881	9,965	27,122	17,801	4,631
量比較	3,384	10,893	1,555	-20,238	-5,466	5,568

資料 : &lt;表 12&gt;와 同一

輸入額은 輸出額 보다 적었으나 物量面에서는 많은 量을 供給한 結果로 볼 때 輸入物量이 많더라도 貿易黑字를 가져오게 되면 그만큼 加工輸出이 아니고 消費라고 해도 消費者편에서는有利하게 된다. 즉 1979년과 1980년은 이들 物量은 國民 1人當 684g에 해당되는 셈이다.

### 세째, 貿易相對國의 問題

主要 果實類의 輸出中에서 밤, 팥기, 자두, 은행은 주로 日本에 輸出되고, 배는 대만을 비롯한 6個國으로 輸出되고 있어서 배의 輸出에서 輸出의 다변화 현상에 따른 이익을 받고 있다.

하나의 國家에 輸出이 치중되어 있을 경우 相對國의 需給變化에 따라 價格의 變化幅이 크게 나타나서 安定的인 輸出에 지장이 크게 된다.

輸入도 1981년 바나나가 대만에서 전포도가 미국에서, 맨델린류와 오렌지가 日本에서 주로 輸入되고 있는데, 果實類의 物物交換이나 他商品과의 交換關係로 輸入이 되지 않는限, 輸出入 해당국가의 다변화는 輸出入의 安定的側面에서 이뤄져야 한다.

### 네째, 果實類 輸入의 單價問題

果實類輸入 中에서 대추의 예에서 보듯이 輸入單價의 폭이 kg당 1.1달러에서 2.1달러까지 약 배의 진폭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품질의 差를 論外로 할 때 지나친 경합에서 오는 문제로 볼 때, 구입 시기, 구입 대상국의 여건에 따라 安定되고 좋은品質을 낮은 價格에 輸入할 수 있는 對策이 있지 않겠는가? 과거 고추와 마늘의 품귀할 때 輸入國에서 輸出國의 輸出價格을 올려 주었던 현상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 다섯째, 果實類의 輸入制限問題

果實類 中에서 바나나類(0801號)와 전조포도만 基本關稅率 50%와 檳榔關稅率 60%가 적용되며, 나머지 果實은 基本關稅率 40%가 적용된다.

그리고 감, 대추, 머루, 및 기타 전조파실(0812號)만이 輸入自由化가 되어 있다.

엘론의 껌질과 감귤류의 껌질은 保社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너트류인 아몬드, 해글너트, 밤, 호도, 잣, 은행 등은 商工部長官과 山林廳長의 별도 公告에 의하여 輸入되며, 이외의 모든 果實類는 農水產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輸入이 許容되고 있다.

果實類의 輸入自由化는 1981년 7월에 첫 단계로 감, 대추, 머루 등이 實施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대추의 輸入比重은豫想外의 多量이 輸入되고 있다.

## IV. 對策

앞에서 우리 나라 果實類의 輸出入 現況과 果實類 輸出入에 따르는 特性과 問題點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그 단편성으로 인하여 向後의 對策을 提示한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前提하고 몇 가지 對策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첫째, 果實類의 輸入自由化 對策

輸入自由化期間이 길면 길수록 輸入自由化品目과 非自由化品目間의 所得彈性值가 急激히 줄어든다(Kiyoshi 1967)는理論을前提로 하고 1981년 7월에 果實類中에서 처음으로 대추가 輸入自由化된 바 있다. 그런데 4個月만에 313톤에 56萬 달러가 9個國에서 輸入된 것은 果實類 輸出 3位인 사과와 4位인 자두와 5位인 딸기류의 輸出額合計와 맞먹는 金額이 대추 輸入으로 나타난 셈이다.

外貨의 절약과 國民經濟의 安定을 위해서 主食을 제외한 果實類는 참고, 自給自足할 수 있도록 輸入自由化時期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國內에서 生產되고 있는 대추가 있는데도 外國產 대추를 꼭 먹어야만 하는 것도 아닐진데 kg당 1.1달러에서 2.1달러까지의 진폭을 갖고 輸出 경쟁을 했다는 점은 貿易憲章 第5條에 어긋나는 行爲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초과 수입되는 果實類 輸入에서는 基準量과 價格 이상일 경우 張力關稅를 소급 추징토록 해야 한다.

向後 이러한 어리석음을 두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一定期間 暫시 대상 품목으로 한 뒤에 自由化가 이뤄져야 하며, 그 自由化도 1次對象, 2次對象 3次對象 등으로 區分되어 公告되어야 한다.

즉 果實類 輸入自由化에서는 國內生產品目은 어떠한 形態이건 他商品에 우선하여 輸入自由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 둘째, 果實類 輸出 장려品目の 擴大

現行 밤만이 유일한 輸出支援品目이지만 品目을 擴大하여 年次的으로 輸出 9大品目으로 擴大시켜 나가야 한다.

擴大品目的前提是對象品目的物量全體를 수매 비축하여 輸出할 수 있는 經濟的 支援體制가 이뤄져야 하며, 다음은 기존 무역상사에게一定比率의 農產物 輸出量을 할당하는 대신 一定比率의 農產物 輸入權을 認定하는 方案이다.

例를 들면 밤 輸出에서 5~20%의 輸入權을 갖듯이 農產物(果實類 포함)의 輸出에 따른 貿易赤字 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 세째, 貿易利益量을 擴大하는 方案

貿易赤字를 유지하면서 物量輸入超過現象을 유지시켜 나가는 制度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果實類의 신선향이 輸出量의 擴大 以上으로 一定率

의 加工工場을 運用해서 生產價格을 保障시켜 주면서 生產組合이나 團體로 하여금 輸出 창구를 擴大시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네째, 變動徵課制의 導入

變動徵課制(varying levy system)의 導入은 年平均 果實類의 生產價格과 消費者價格을 委員會에서 檢討한 後 輸入 果實類(農產物)에 對해서 價格上의 差額을 徵課하여 生產基盤擴大와 生產者에게 재해 및 價格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구할 수 있는 制度 導入이다.

### 參 考 文 獻

- 李柏薰, “肉과 食用肩肉의 輸出入 現況과 對策,” 「農村經濟」第4卷3號, p. 90  
 KREI, 「80年代 農政基本方向」, 1981. p. 56.  
 Kiyoshi, Kojima, *Trade Arrangement among Industrial Countries: Effect on Japan*, in *Studies in Trade Liberaliz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67.